

해남군, 치매 원스톱 시스템 구축... 치매환자 지원

조기발견·맞춤관리·인식개선 치매 안전망 구축 중점 노력

해남군이 치매 예방을 위한 조기검진과 치매 관리 원스톱 시스템을 구축해 주민 건강 지키기에 나선다.

26일 해남군에 따르면 치매관리 사업은 해남군치매안심센터를 중심으로 치매환자 조기발견 및 치료·관리 등 통합서비스를 강화하고 맞춤형 환자 관리 및 서비스로 치매 안전망을 구축하는데 중점을 두는 한편 치매친화적 환경 조성을 통한 사회적 인식개선에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해남군은 치매환자 조기 발견과 맞춤형 서비스를 통한 치료관리 등 통합서비스를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특히 60세 이상 모든 군민의 치매선별검사를 목표로 올해부터 매년 1만여명씩 치매선별검사를 실시, 2025년까지 전체 대상자에 대한 검사를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보건소 등에서는 치매조기검진(인지선별검사)을 상시 무료로 시행하며, 보건기관 방문이 힘든 주민들을 위해 찾아가는 치매조기검진도 추진한다. 전수검사를 통해 치매환자 조기발견과 선제적 예방관리에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치매 진단을 받은 경우 치매약을 복용

하는 치매환자를 대상으로 월3만원 이내 치매치료관리비를 지원하고 기저귀, 물티슈 등 조호물품을 제공한다.

치매안심센터에서는 치매환자를 위한 쉽터, 일반 어르신들을 위한 치매 예방 교실, 치매환자 가족과 보호자를 위한 가족교실 등 대상자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다. 홀로 살거나 부부가 치매를 겪는 등 돌봄 사각지대에 있는 환자의 경우 센터 외에도 복지, 의료, 반찬배달 등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연계해 안전망을 확충하는 데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치매어르신들의 실종 예방을 위한 배회인식표 발급, 지문 등 사전등록, 배회감지기(GPS)를 보급 등 치매환자 실

종 예방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군민과 함께하는 치매인식개선과 안심환경 조성에도 적극적이다. 치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치매파트너 양성회와 치매 극복 선도단체, 치매안심가맹점 등을 확대 지정해 지역사회의 치매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해남군치매안심센터 관계자는 "치매의 예방과 조기발견은 물론 치매가 있어도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지역사회 조성을 위해 치매안심센터가 중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해남=전연수 기자



여성친화도시 조성 역량강화교육 강진군, 가족친화사회 교육·토론

강진군은 지난 22일 강진군청소년문화의집 강당에서 강진군 군민참여단을 대상으로 여성친화도시 조성 관련 역량 강화교육을 실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강진군 군민참여단 20여 명이 참여해 '지역사회 안전증진&가족친화 환경 조성'을 주제로 윤희주 전남여성가족재단 연구원의 여성친화도시 평가 지표에 대한 설명과 사업 사례 소개로 진행됐다.

우수사례로는 1인 가구 돌봄과 안전이 함께하는 삶을 주제로 1인 여성가구를 연대한 사회 안전망 구축, 여성생활 문화공간을 만들어 운영중인 비비 사회적협동조합의 사례가 소개됐으며 노인인구와 청년이 함께 돌보는 동네 이야기를 주제로 '어르신과 상호 청년이 협력해 만드는 광주시 발산마을 브랜딩 & 디자인 사례'가 소개됐다.

우수사례 소개 후 강진군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정책 및 우수 시책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강진=김윤복 기자

한옥문화·공공건축물 품격 향상 영암군·건축공간연구원 업무협약

영암군과 건축공간연구원이 23일 영암군청에서 영암 한옥문화 발전과 공공건축물 품격 향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양 기관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한옥 등 지역 고유 문화자원을 활용한 도시브랜딩 전략 수립, 공공건축물 건립에 따른 품격 향상을 위해 상호 협력하는 것에 의미를 두고 있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대한민국 한옥문화 비엔날레 개최에 따른 한옥관련 문화자원 개발 △영암군 한옥 문화자원 활용 도시브랜딩을 위한 정책개발·지원 △공공건축물 건립에 따른 공간구성 및 디자인 관련 정보교류 및 제언 △한옥 등 건축자산 등록·보존 및 관리를 위한 자문 및 정보제공 △건축자산의 유희공간 재생과 활용을 위한 연구·정책 교류다.

건축공간연구원은 △건축과 도시공간의 조성, 이용 및 디자인에 대한 종합적인 조사·연구개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 건축물 공간환경 계획 지원 △한옥 및 건축자산 보존·활용 정책지원 △한옥건축 활성화를 위한 제도·사업 지원 등 건축과 도시공간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정부 출연연구기관이다.

영암군 관계자는 "건축 및 도시공간, 한옥문화 진흥의 싱크탱크 역할을 수행하는 건축공간연구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해 영암군 도시공간 구성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상호 협력 동반자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영암=이병영 기자

갯벌 유네스코 등재 기원 전시 무안군 황토갯벌랜드서

무안군은 해제면 무안황토갯벌랜드 플레이아트존에서 무안갯벌 기획전시전을 열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전시전은 '철새가 돌아오는 황토갯벌의 포근함'이라는 주제로 지난 25일부터 6월 23일까지 30일간 진행된다.

지역 예술인의 무안갯벌에 대한 다양한 창작 작품과 자연과 미래에 대한 생태적 감수성을 감상할 수 있으며 회화, 조각, 사진, 도자 등 20점이 전시된다.

휴관일인 월요일을 제외하고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누구나 무료로 관람할 수 있고 온라인 랜선투어 큐레이터 서비스도 제공한다.

무안황토갯벌랜드에서는 전시 외에도 생태갯벌과학관, 해상안전체험관관람과 숙박, 캠핑, 공연, 셀프주방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다.

특히 25일에는 개막 행사로 목관 6중주 공연행사와 갯벌친구아이싱구기 만들기 체험이 진행됐으며 낚시지 고향사랑기부 챌린지와 전시 리뷰 남기기 이벤트도 열렸다. 무안=김행언 기자

신안군, 수산종자 33만마리 방류 "수산자원 회복·소득증대 힘쓸 것"

신안군은 지난 21일 수산자원 회복과 어업인 소득증대를 위해 흑산 흑도 외 19개 지선에 전복 16만 마리와 해삼 17만 마리를 방류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에 방류한 전복과 해삼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의 전염병 검사를 마친 종자로, 최적의 성장 여건을 갖춘 암초해역에 해당 지선 어업인과 함께 방류했다. 특히 전복과 해삼은 방류 후 재 포획률이 수산종자 방류 품종 중 제일 높고, 고부가가치 상품으로 소비자들로부터 각광을 받아 어촌계에서 가장 선호하는 품종으로 이번 방류를 통해 수산자원 회복과 어촌계 소득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신안군은 오는 6월 초 비금 권역에 감성돔 10만 마리와 흑산 권역 해삼 34만 마리를 추가 방류할 계획이다.

신안군은 지난 2022년부터 수산자원 산란식장 조성사업(5개년 추진) 일환으로 본격 추진 중인 비금 권역(쥐노래미 50억), 하의 옥도-안좌 사치권역(조피볼락 40억)에 인공어초 투하, 수산종자 방류, 해조류 이식(다시마, 곰피 등) 등 지속 가능한 수산자원 공급 거점 마련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신안=홍일갑 기자



무안군은 지난 25일 무안군 해제면 무안황토갯벌랜드에서 무안갯벌 기획전시전을 개최했다.

무안군 제공

해남군, 빈집재생프로젝트 "민관협력 모범사례 기대"

농촌빈집 전학가구에 무상임대 협력재단·이마트 교육기자재 전달

해남군이 전국 최초로 추진하고 있는 농식품부 농촌빈집재생프로젝트가 6월 말 준공을 앞두고 속도를 높이고 있다.

농식품부 농촌빈집프로젝트는 공공과 민간이 함께 빈집 재생에 필요한 재원을 투자, 빈집을 농촌지역에 필요한 맞춤형시설로 재활용하는 사업으로 농림축산식품부, 전남도, 이마트, 대·중소기업농업협력재단이 협력해 추진하고 있다.

해남군은 1호 대상지로 선정돼 전국에서 가장 먼저 사업을 추진 중이며 올해 작은학교 살리기와 연계해 마산면 지역 빈집 8동을 리모델링하게 된다.



해남군과 대·중소기업농업협력재단, 이마트 관계자들이 지난 22일 농식품부 농촌빈집재생프로젝트 일환으로 마산초등학교에 4000만원 상당의 교육기자재를 전달하고 있다. 해남군 제공

마산면 농촌빈집 재생은 6월 중순 완료될 예정으로 마산초등학교로 전학하는 자녀가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5월27일부터 6월10일까지 입주신청을 받는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2030년 8월까지 무상으

로 빈집을 임대할 수 있다.

지난 22일에는 대·중소기업농업협력재단과 이마트에서 마산초등학교에 4000만원 상당의 교육기자재를 전달했다.

이선기 이마트 CSR팀 부장은 "지역소멸과 인구감소 대책으로 기업과 공공기관이 함께 빈집재생프로젝트를 추진하게 됐다"며 "전국 최초로 추진하는 이번 프로젝트가 민관이 협력해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모범사례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해남군은 빈집 철거, 전남형 청년마을 조성, 농촌공간정비사업 등 빈집을 활용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농촌 빈집 해소와 지역자원 활용에 성과를 거두고 있다. 해남=전연수 기자

무안군, 양파·마늘 수확 농촌일손돕기 운영

23일부터 내달 15일까지 가동 기관·단체, 대학생 등 상시 모집

무안군은 본격적인 양파·마늘 수확기를 맞아 무안군청 공직자를 중심으로 유관기관, 사회단체 등과 협력해 인력난을 겪는 농가들을 위해 농촌 일손 돕기에 나선다.

지난 23일 김산 무안군수를 비롯한 무안군청 직원들이 농가에서 양파 수확에 나선 것을 시작으로 6월15일까지 군청

각 부서, 농업기술센터, 읍·면사무소가 농촌 일손 돕기를 추진한다.

또 유관기관, 사회단체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자원봉사자를 상시 모집해 독거노인, 장애·질병·상해 농가 등 영세농가를 지원할 예정이다.

지난해에는 기관·단체·개인 봉사자 1000여명이 35ha 면적의 일손을 보았으며, 매년 군청 직원과 전남도, 군·경, 타 시도 공무원, 기관단체, 대학생 등이 참여해 농가를 돕고 있다.

김산 군수는 "양파·마늘 수확기 농촌일손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도움이 필요한 농가에 일손 돕기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며 "자원봉사를 통한 일손 돕기에도 많은 관심과 적극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자원봉사활동을 원하는 대학교와 기관·사회단체는 농업기술센터식량원과 또는 각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무안=김행언 기자

전남일보 페이스북 facebook.com/jnilbo